

## ▶ 내신 기출 문학 신사고-하편 ◀

### Ⅳ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1.

- \*찬기파랑가 (30문제)-----1쪽
- \*시조 세 편 (31문제)-----12쪽
- \*수의 비밀 (25문제)-----26쪽

2.

- \*조신의 꿈 (35문제)-----38쪽
- \*사씨남정기 (33문제)-----56쪽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40문제)-----80쪽

3.

- \*봉산 탈춤 (43문제)-----109쪽
- \*불모지 (18문제)-----138쪽

4.

- \*한중록 (17문제)-----153쪽
- \*권태 (9문제)-----168쪽
- \*공방전 (19문제)-----174쪽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30문제)-----185쪽

### Ⅴ 문학에 관한 태도

- \*만보 (12문제)-----200쪽
- \*광문자전 (11문제)-----208쪽

◆빠른 전체 정답-----**214**쪽

◆해설-----**216**쪽

**교재 버전: 2021.02.14**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찬기파랑가” 분석 정리

열치매  
나토얀 드리  
흰 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 1~3구: 화자가 달에게 무엇을 따르는지 질문함.  
새파른 **지리어** ○: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드러내는 소재  
내(川) → 맑고 깨끗한 모습  
기랑(著郎)이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리시 **지벽**히  
조약들(자갈) →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  
랑(郎)이 디니다사온  
밋스미 굶홀 좇누아져  
▶ 4~8구: 기파랑을 추모하여 따르고 있다고 달이 대답함.  
낙구 첫머리의 **아으** **잣스가지** 노파  
감탄사(10구체) → 잣나무 가지 →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상  
향가의 특징) **서러** 몬누을 화판(花判)이여  
시련, 유혹, 불의 ▶ 9~10구: 기파랑의 높은 절개와 고귀한 성품을 예찬함.  
- 「삼국유사」

**핵심 정리** 23면 12~13쪽

|    |   |
|----|---|
| 갈래 | 향가, 사뇌가(10구체 향가)  |
| 성격 | 서정적, 예찬적  |
| 제재 | 기파랑의 모습과 성품   |
| 주제 |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예찬  |
| 특징 | ① 화자가 달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구성 방식을 취함.<br>② 향찰로 쓰인 작품으로, 해독자에 따라 의미 해석에 차이가 있음.<br>③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시상을 구체화함. |

**공공 정리** 23면 12~13쪽

- 감탄사 ‘아으’

10구체 향가에서 9행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감탄사로 ‘아아’, ‘아야’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시상을 집약하는 기능을 함.

↓

향가의 감탄사를 시조 종장 첫 부분에 주로 등장하는 영탄구의 연원으로 보아, 향가를 시조 형식의 기원으로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함.

**꼼꼼 정리** 23면 12~13쪽

- 해독에 따른 차이

|     | 양주동 해독       | 김완진 해독    |
|-----|--------------|-----------|
| 형식  | 화자와 달의 문답 형식 | 화자의 독백 형식 |
| 구성  | 3-5-2        | 5-3-2     |
| 분위기 | 미래 지향적, 진취적  | 애상적, 안타까움 |

**꼼꼼 정리** 23면 12~13쪽

- 기파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시어

|      |                     |              |
|------|---------------------|--------------|
| 나리   |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      | } 기파랑의 인품 예찬 |
| 지벽   | 기파랑의 원만하면서도 강직한 성품  |              |
| 잣스가지 |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상 |              |
| 주제   |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예찬  |              |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신라의 승려인 총담사가 화랑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여러 자연물에 비유하여 찬양한 향가이다. 향가는 시상의 전개에 따라 4구체, 8구체, 10구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4구체는 민요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8구체는 완결된 형식인 10구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찬기파랑가」는 10구체 향가로서, 월명사가 지은 「제망매가」와 함께 표현 기교와 서정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은 정제된 형식미와 세련된 문학적 비유를 통해 서정시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1~3구는 화자가 기파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달에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이유를 묻는 내용이고, 4~8구는 화자의 물음에 대한 달의 대답으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냇물과 조약돌에 비유하여 찬양하는 부분이다. 9~10구는 화자의 독백으로 화자는 낙구의 감탄사를 통하여 감정을 집약함과 동시에 잣나무 가치를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예찬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요컨대 이 작품은 세속에서 벗어난 구도자적인 화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이 창작된 통일 신라 말기의 현실이 상당히 부패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이 작품을 감상하며 경박한 속세에서 신성한 가치를 추구했던 당대 사람들의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작품 속에 당대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학과 역사의 상호 관계 속에서 작품을 더욱 심도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찬기파랑가” 학습 활동 문제**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을 시상 전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구성상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

| 구분    | 구성상의 특징 | 주요 내용                          |
|-------|---------|--------------------------------|
| 1~3구  | 화자의 질문  | 화자가 달에게 흰 구름을 쫓아 떠가고 있는지 질문함.  |
| 4~8구  | 달의 대답   | 달이 화자에게 기파랑을 흠모하여 따르고 있다고 대답함. |
| 9~10구 | 화자의 독백  | 화자가 기파랑의 높은 절개와 고귀한 성품을 예찬함.   |

**(2)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어떠한지 파악해 보자.**

이 작품의 시적 대상은 화랑의 우두머리였던 기파랑으로, 화자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기파랑을 따르고자 하는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파랑’과 관련된 이 작품에 반영된 세계관을 이해해 보자.**

(1) 이 작품에 쓰인 소재의 속성과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시어   | 속성               | 상징적 의미                |
|------|------------------|-----------------------|
| 나리   | 맑고 깨끗함.          | 깨끗하고 청렴한 태도나 성격       |
| 지벽   | 둥글고 단단함.         | 원만하면서도 강직한 성품         |
| 잣사가지 | 높이 솟아 있으며 항상 푸름. | 고결한 인품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절개 |



● 보충 ▶ 을지문덕, 「여수 장우증문시」

|    |   |
|----|---|
| 갈래 | 한시, 오언 고시   |
| 주제 | 적장에 대한 아우와 조롱   |
| 특징 | ① 대구와 반어를 통해 상대를 조롱함.<br>② 현전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한시<br>③ 역사적 사건(살수 대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 보충 ▶ 작자 미상, 「구지가」

|    |   |
|----|---|
| 갈래 | 고대 가요, 한역 시가                                  |
| 주제 | 임금(지도자)의 강림 기원                                |
| 특징 | ①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집단 무가<br>② 주술성을 지닌 노동요로 보기도 함. |

## “찬기파랑가” 구절 풀이

교과서 · 192쪽 1~3행

열치매 / 나토얀 두리 / 흰 구름 조조 떠가는 안디하

- “(구름 장막을)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좇아 떠가는 것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달에게 던진 화자의 질문에 해당한다.

교과서 · 192쪽 4~5행

새파란 나리여히 / 기랑(耆郎)이 즈시 이슈라

- “새파란 내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내용으로, 새파란 냇물과 같은 기파랑의 맑고 청렴한 성품을 따르고자 한다는 달의 대답에 해당한다.

교과서 · 192쪽 6~8행

일로 나리시 직벽히 / 랑(郎)이 디니다사온 / 막스미 궁홀 좇누아져

- “이로부터 시내 조약돌에 낭의 지나시던 마음의 끝을 좇으려 하노라.”라는 달의 대답이다. 둥글고 단단한 조약돌 같은 기파랑의 원만한 성격과 강직한 태도 등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교과서 · 192쪽 9~10행

아으 잣스가지 노파 / 서리 묻누을 화판(花判)이여

- “아아, 잣나무 가지 높아 서리 모르실 화랑의 우두머리여.”라는 화자의 독백이다. 화랑의 우두머리이던 기파랑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서리’는 고난, 역경, 불의를 상징하고, ‘잣나무 가지’는 그것을 모를 정도로 고귀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기파랑의 높은 절개를 상징하고 있다. ‘아으’는 낙구를 이끄는 감탄사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시상을 마무리한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열치매  
 나토얀 두리  
 흰 구름 초초 떠가는 안디하  
 새파른 ㉠나리여히  
 기랑(耆郎)이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리사 ㉢지벽히  
 랑(郎)이 디니다샤온  
 ㉣무스미 궂흙 좇누아져  
 아으 잣사가지 노파  
 서리 ㉤몹누을 화판(花判)이여

-충담사, '찬기파랑가'

**대전반석고등학교 (대전)**

1. ㉠~㉤의 시어 해석으로 옳은 것은?

- ① ㉠: 나라에            ② ㉡: 마음이            ③ ㉢: 절벽에
- ④ ㉣: 마음의 끝을    ⑤ ㉤: 놀려 지내는

**과천여자고등학교 (경기)**

2.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애상적인 정서가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나타난다.
- ② 정신적인 의미가 자연물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 ③ 세속에서 벗어난 구도자적인 화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향찰로 쓰인 작품으로 해독자에 따라 의미 해석에 차이가 있다.
- ⑤ 정제된 형식미와 세련된 문학적 비유를 통해 서정시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관찰 대상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화자가 달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문답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 ③ 낙구를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한자의 뜻 부분과 소리 부분을 활용하여 우리말 노래를 표기하였다.
- ⑤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시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4.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 1) '기파랑의 뜻을 따르고자 함'을 드러내는 시행:
- 2) '시련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와 기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어:

**현대청운고등학교 (서울)**

5. 다음 시어 중 위 시의 시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시어만으로 묶은 것은?

둘, 구름, 나리, 지벽, 궂, 잣사가지

- ① 둘, 구름, 나리, 지벽
- ② 나리, 지벽, 궂, 잣사가지
- ③ 나리, 지벽, 잣사가지
- ④ 둘, 지벽, 잣사가지
- ⑤ 구름, 나리, 잣사가지

**신록고등학교 (서울)**

6. 다음 중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위 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창밖이 어른어른커늘 넘만 여겨 펄떡 뛰어 뚝 나서 보니  
 님은 아니 오고 으스름 달빛에 널 구름 날 속였구나  
 마초아 밤일세망정 행여 낮이런들 님 우일 뻔하여라
- ② 興亡(흥망)이 流水(유수)하니 滿月臺(만월대)도 秋草(추초) | 로다  
 오백 년 王業(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쳐시니  
 夕陽(석양)에 지나난 客(객)이 눈물계워 흐노라
- ③ 초당(草堂)에 일이 업서 거문고를 베고 누어  
 태평성대를 꿈에나 보려투니  
 문전(門前)에 수성어적(數聲漁笛)이 잠든 날을 깨와다
- ④ 氷姿玉質(빙자옥질)이여 눈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香氣(향기)노아 黃昏月(황혼월)을 期約(기약)하니  
 아마도 雅致高節(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흐노라
- ⑤ 내 마음 버혀 내어 더 달을 만들고저  
 구만 리 당텨(長天)의 번 듯이 걸려 이서  
 고운 님 겨신 곳에 가 비취어나 보리라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神策究天文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통달했고  
 妙算窮地理 오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네.  
 戰勝功既高 싸움에 이기어 공이 이미 높으니  
 知足願云止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 을지문덕,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

(나)

열치매  
 나토안 두리  
 흰 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새파른 ㉠나리여히  
 기랑(耆郎)이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리사 ㉢지벽히  
 랑(郎)이 디니다샤온  
 막스미 굶을 좃누아져  
 아으 ㉡잣스가지 노파  
 ㉣서리 몬누올 ㉤화판(花判)이여

- 충담사, '찬기파랑가'

**과천여자고등학교 (경기)**

7. (나)의 ㉠~㉤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

8.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달리 (가)는 한문으로 창작된 한시의 형태로 전승되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대구와 반어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쓰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

9. (나)의 시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둘'은 세상을 밝혀주는 광명의 존재라는 점에서 시적 화자가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기원의 대상이다.
- ② '흰 구름'은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③ '나리'는 맑고 깨끗한 속성을 통해 시적대상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순수한 내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아으'는 낙구 감탄사로서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잣스가지'와 '서리'는 시적 대상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상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신목고등학교 (서울)**

10. (나)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요에 기원을 두며 구전되다 한글 창제 후 한글로 수록되었다.
- ②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창안한 차자 표기법을 통해 문헌에 수록되었다.
- ③ 4음보의 율격으로 대체로 사대부들의 이념과 예술적 취향을 형상화 하였다.
- ④ 고려시대 대표적인 서정갈래로 단연체 및 분연체에서 후렴구가 삽입된 작품도 있었다.
- ⑤ 주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고대 부족 국가 시대에서 삼국시대 초기까지 불리었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1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여러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② 우리말을 한문으로 번역해 한자로 기록한 10구체 향가이다.
- ③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 대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어저 내 일” 평석 정리

**가** 어저 내 일이야 📍 동영상\_「어저 내 일이야」 낭송 황진이

입을 주어(재)로 하여 입의 행위를 강조하는 도치로 볼 수도 있고, 화자를 주어로 하여 행간 걸침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의성을 가진.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드냐 ▶ 초장: 떠난 입에 대한 그리움  
감탄사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티야 ▶ 중장: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서 갈등하다 입을 붙잡지 못한 아쉬움 - 「청구영언」(진본)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 종장: 입과의 이별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  
자존심과 연정 사이의 갈등

## 핵심 정리 교과서 198-199쪽

### ● 어저 내 일이야

|           |  |
|-----------|--|
| <b>갈래</b> | 평시조  |
| <b>성격</b> | 애상적, 감상적   |
| <b>제재</b> | 입과의 이별   |
| <b>주제</b> | 이별의 안타까움과 입에 대한 그리움  |
| <b>특징</b> | ① 감탄사와 영탄적 어조를 활용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br>② 도치법 혹은 행간 걸침을 통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함. |

**나** 만흥(漫興) 📍 동영상\_「만흥」 낭송 윤선도

📖 **작품 연구** ▶ 교과서 외 「만흥」 각 수의 중심 내용

|     |                     |
|-----|---------------------|
| 제1수 | 분수를 지키며 자연 속에서 사는 삶 |
| 제2수 | 소박한 삶 속에서 찾은 즐거움    |
| 제5수 | 자연 귀의의 삶            |

잔 들고 혼자 안자 면 뉘흘 버라보니 〈제3수〉  
산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와, 자연과의 몰아일체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매우 큼.  
 말씀도 우음도 아녀도 몰내 도하흐노라 〈제3수〉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하나 된 몰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 | 낙뎛더라 〈제4수〉  
헤어려 보니, 생각해 보니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 강호 한정의 삶에 대한 자부심

강산이 도타 흐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분수로(능력으로)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고산유고」  
(임금의 은혜들) 할 일 할 수 있는 일 ▶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핵심 정리

교과서 198-199쪽

● 만흥

|    |   |
|----|---|
| 갈래 | 연시조, 강호 한정가   |
| 성격 | 자연 친화적, 풍류적   |
| 제재 | 자연과 함께 지내는 삶  |
| 주제 |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만족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 특징 | ① 강호가와 성격과 충신연주지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br>② 중국의 고사를 활용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

**다 일신(一身)이 스자 혀엿더니** 동명상 '일신이 스자 혀엿더니' 낭송 작자 미상

사람이나 동물의 실을 잘 물어 피를 빨아먹는 모기. 빈대. 벼룩. 이 따위의 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온갖 부류들을 상징함.

일신(一身)이 스자 혀엿더니 물궂궂 게워 못 슬니로다.  
조선 시대에,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 총장: 물궂궂으로 인한 세상살이의 어려움

비파(琵琶) 깃튼 빈아(蚊蟻) 샷기 사령(使令) 깃튼 등에 어이 갈쌌궂 습위약  
동양 현악기의 하나. 동글고 긴 타원형이며, 지류는 곧고 짧다.

이 쉰 바퀴 누른 바퀴 핏겨 깃튼 가랑니며 보리알 깃튼 수통니며 듀린 너 갓 짠  
고약하구나

니 쉰 벼룩 왜(倭)벼룩 뛰는 놈 괴는 놈에 다리 기다현 모기 부리 썩죽흔 모기  
고약하구나

슬딘 모기 여원 모기 그림아 썩록이 심(甚)흔 당(唐)비루에 더 어려웨라  
▶ 총장: 다양한 물궂궂의 종류

그중에 춤아 못 견딜 쏜 오뉴월(五六月) 복다림에 쉬프린가 혀노라  
▶ 총장: 가장 견디기 힘든 썩따리 - 「가곡원류」(국악원본)

다양한 물궂궂들의 예(예)게  
 - 숨 가쁘게 엮어 나가는 익살스러운 말투로 웃음을 지어내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통지함.

핵심 정리

교과서 198-199쪽

● 일신이스자혀엿더니

|    |  |
|----|--|
| 갈래 | 사설시조   |
| 성격 | 풍자적, 비판적, 해학적  |
| 제재 | 물궂궂(인간에게 해로운 존재들)  |
| 주제 |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
| 특징 | ① 열거법, 비유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br>② 백성을 착취하는 무리들을 물궂궂에 빗대어 비판·풍자함. |

꼼꼼 정리

교과서 198-199쪽

● '물궂궂'의 의미



【감상의 힘 다지기】

㉞ **어저 내 입이야** 이 작품은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평시조이다. '어저'로써 탄식과 회한의 정서를 압축하여 나타내고, 중의적 의미를 지닌 '제 구티야'를 절묘한 위치에 배치하여 화자의 심리적 갈등과 애잔한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말을 정갈하고 묘미 있게 구사하여 화자의 마음이 더욱 진솔하고 곡진하게 표현되도록 하였다.

㉓ **만흥(漫興):**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감흥을 표현한 연시조이다. 화자는 ‘자연’과 ‘인간 만사’를 대비하여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의 자세로 물아일체를 이루면서 사는 삶이 세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6수>에서 자연 속에서의 안빈낙도가 임금의 은혜 덕분임을 나타냄으로써 조선 전기 시조의 특징인 ‘역균은(亦君恩)’의 전통을 잇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㉔ **일신(一身)이 수자 헛엇더니:** 이 작품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벌레들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이다. 화자는 초장에서 시적 대상으로서 ‘물-기것’을 언급한 뒤, 종장에서는 수많은 ‘물-기것’들을 비유와 열거를 통해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물기것들은 백성을 착취하는 부류들을 상징한다. 종장의 “춤 못 견딜 쏘”이라는 표현에서 ‘쉬뜨리’로 상징되는 탐관오리의 해악이 당시에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 “시조 세 편” 모티브인 함양 읍지

### 1. 시조 세 편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정리해 보자.

| 작품                | 화자의 상황                   | 화자의 정서                       |
|-------------------|--------------------------|------------------------------|
| ㉑ 어저 내 일이야        | 떠나려는 입을 붙잡지 않고 그냥 보내 버림. | 그리움, 안타까움, 회한                |
| ㉒ 만흥(漫興)          | 자연 속에 묻혀 지내며 흥취를 즐김.     | 만족감, 행복, 자연과의 일체감, 임금에 대한 감사 |
| ㉓ 일신(一身)이 수자 헛엇더니 | 물기것들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움.       | 괴로움, 고달픔                     |

### 2. ㉑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시조를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읽어 보고,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

● 이시라 헛엇면 가라마는 제 구터야 / 보내고

‘가라마는’과 ‘제 구터야’를 도치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제’는 떠나는 입을 의미하므로, “(내가)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입이 구태여 갔으라마는, (입을) 보내고”로 해석할 수 있다.

● 이시라 헛엇면 가라마는 / 제 구터야 보내고

‘제 구터야’를 종장과 종장의 행간 걸침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제’는 화자 자신이 되므로,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입이) 갔으라마는, 내가 구태여 (입을) 보내고”로 해석할 수 있다.

(2) 다음은 고려 가요인 『동동』의 일부이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이 작품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보자.

|  |
|--|
|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부른 빗 다호라<br>도라보실 니를 적곰 좃노노이다<br>아으 동동(動動)다리            |
|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헛야 두고<br>니를 훈 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br>아으 동동(動動)다리 |
| 팔월(八月)스 보로몬 아으 가배(嘉俳) 나리마론<br>니를 뵈셔 녀곤 오늘낫 가배(嘉俳)샷다<br>아으 동동(動動)다리       |

- 작자 미상, 「동동(動動)」 중에서

| ▶ 보충 ▶ 작자 미상, 「동동」 |   |
|--------------------|---|
| 갈래                 | 고려 가요   |
| 주제                 | 입에 대한 송축과 그리움   |
| 특징                 | ① 전 13연의 월령체 형식으로 구성됨.<br>② 각 달의 풍속을 소개하며 개인 정서를 드러냄.<br>③ 후렴구를 사용하여 음악적 흥취를 고조함. |

- 내용 면: 두 작품 모두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가 임을 그리워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똥에서는 임을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과 회한의 정서가 중점적으로 드러난 데 비해, 「동동」에서는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강조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 형식 면: 두 작품 모두 음수율과 음보율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똥가 3장의 단연체 형식인 데 비해, 「동동」은 총 13연의 월령체로 구성되며 여음과 후렴구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3. ㉠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화자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자연과의 일체감과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하는 삶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며 유교적 ‘충’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선비로서의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제6수>에서 화자가 ‘님군 은혜(恩德)’를 강조한 이유를 작가의 삶과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말해 보자.**

보기

「만흥」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전라도 해남에서 생활할 때 지은 것이다. 작가는 혼탁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적들로부터 탄핵과 모함을 받아 수십 년간이나 유배와 낙향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자연 속에 은일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연군의 정을 드러낸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이 작품은 조선 초기 강호가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강호에서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유교적 충의(忠義)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았으며, 작가가 비록 자연 속에 은일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로서 그러한 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 ㉡와 비교할 때 이 작품이 지닌 형태적 특징을 말해 보자.**

|  |          |   |
|--|----------|---|
| <b>㉠, ㉡</b>  | <b>↔</b> | <b>㉢</b>  |
| 똥는 단시조, 똥는 단시조가 연속되는 연시조로서, 한 연이 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 3·4조라는 정형성이 비교적 잘 지켜짐. |          | 시조로서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장 형식과 4음보의 음보율은 유지되지만, 중장의 길이가 고정되지 않고 늘어남. |

**(2) 중장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설명해 보자.**

사람을 괴롭히는 수많은 벌레(물것)들을 비유와 열거를 활용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삶의 고달픔을 강조하고, 당대의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해학성을 드러낸다.

(3)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관련지어 ‘물꺾’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물꺾**

조선 후기에는 양란 이후 봉건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지배층의 부패가 심화되는 등 극심한 사회 변동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가렴주구하는 관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이 작품에서 사람을 물어 괴롭히는 ‘물꺾’은 바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 각 작품이 어떤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지 정리해 보고, 시조 세 편 의 향유층을 짐작해 보자.

| 작품                   | 주제 의식                         | 향유층          |
|----------------------|-------------------------------|--------------|
| ㉠ 어저 내 일이야           | 이별의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 양반층, 기녀, 평민층 |
| ㉡ 만흥(漫興)             |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만족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양반층          |
| ㉢ 일신(一身)이 스자<br>헛었더니 |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 평민층          |

## “시조 세 편” 두 편 읽기

교과서 · 198쪽 ㉠ 초장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나

○ 임을 보내 놓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어저’라는 감탄사로 시작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

교과서 · 198쪽 ㉡ 중장, 종장

이시라 헛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야 /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헛노라

○ 임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제 구태야’를 중장의 ‘가라마는’과 연결하면 ‘제’는 ‘임’이 되어 ‘임이 구태여 갔겠느냐마는’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종장의 ‘보내고’와 연결하면 ‘제’는 화자가 되어 ‘내가 구태여 보내 놓고’로 해석할 수 있다.

교과서 · 198쪽 ㉢ <제3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흔 바라보니 ……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문내 뉘하호노라

○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의 즐거움과 자연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에 빠진 화자의 감흥이 드러난다. 그리워하던 임이 찾아온 것보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를 더 반가워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자연애가 부각된다. 자연은 말을 하거나 웃음을 나눌 수 없지만,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교감하며 혼연일체가 된 즐거움을 노래한다.

교과서 · 198쪽 ㉔ <제4수> 초창, 중창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터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 | 낙뫼터라

○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정승의 벼슬이나 황제의 삶보다 낫다며, 자연에 묻혀 한가하게 지내는 흥취가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즐거움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은자(隱者)로 살았던 소부와 허유가 약았다면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예찬하고 있다. 속세는 자연과 대립되는 공간으로, 벼슬길에서 좌절을 맞본 화자가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 198쪽 ㉕ <제6수>

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연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갓고자 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 자연과 함께 지내는 자신의 삶이 임금 덕분이라며, 임금의 은혜를 갓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만족감을 ‘충(忠)’이라는 유교적 이념과 관련지으려는 당대 사대부의 의식이 엿보인다.

교과서 · 199쪽 ㉖ 초창, 중창

일신(一身)이 스자 햐엿더니 물궂것 계워 못 슬니로다  
비파(琵琶) 것튼 빈아(蟬蟻) 샷기 사령(使令) 것튼 등에 …… 그림아 썩록이 심(甚)  
흔 당(唐)비루에 더 어러웬라

○ 초창에서는 제 한 몸이 살고자 하였더니 ‘물궂’들이 괴롭혀 못살겠다며 삶의 고통스러움을 직설적인 어투로 드러내면서 백성들이 착취당하는 괴로운 현실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중창에서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무리를 벌레(물궂)에 비유하고, 각각의 특징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여 열거함으로써 풍자성과 해학성을 드러낸다.

교과서 · 199쪽 ㉗ 중창

그중에 춤아 못 견딜 쏜 오뉴월(五六月) 복다림에 쉬푼린가 흐노라

○ 여러 것들 중 특히 ‘쉬파리’의 해악을 강조하는데, 가뜩이나 살기 힘든 시기인 ‘오뉴월 복다림’에 나타난 쉬파리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하여 생존마저 위협받게 하는 탐관오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지배층의 수탈과 착취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드냐  
이시라 허더면 가라마는 ㉡제 구티야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허노라  
-황진이

(나)  
[A]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뒤희를 바라보니  
[A]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허라  
㉢말습도 우움도 아녀도 물내 도하허노라 <제3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닐다 허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허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 ㉤낙뎡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연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허야도 허을 일이 업세라 <제6수>  
-윤선도, '만흥'

(다)  
㉥일신(一身)이 스자 허였더니 물기것 계워 못 슬니로다  
비파(琵琶) 것튼 빈아(蟬) 샷기 사령(使令) 것튼 등에 어  
이 갈씩귀 숨위약이 쉰 바퀴 누른 바퀴 핏겨 것튼 가랑니며 보  
리알 것튼 수통니며 듀린 니 갓 짠 니 잔 벼룩 왜(倭)벼룩 뛰  
는 놈 괴는 놈에 다리 기다헌 모기 부리 썩족흔 모기 슬닌 모  
기 여윈 모기 그림아 썩룩이 심(甚)흔 당(唐)비루에 더 어려웨  
라  
그중에 춤아 못 견딜 쏜 오뉴월(五六月) 복다림에 쉬프린가  
허노라  
-작자미상

**당곡고등학교 (서울)**

1.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가)를 감상할 때 ㉡를 '제 구티야 가라마는'의 ㉢도치로 볼 수도 있고, '제 구티야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허노라'의 ㉣행간 걸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① ㉡의 경우 화자의 고집이 센 성격을 강조할 수 있겠군.
- ② '제'가 지칭하는 대상은 ㉢의 경우 '임'이고, ㉣의 경우 화자가 되는군.
- ③ 이별의 책임은 ㉢의 경우와, ㉣의 경우 모두 화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의 경우 자존심과 연모의 감정 사이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효과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의 경우는 중장에 국한되는 해석이고, ㉣의 경우는 중장에서 시작하여 종장까지 이어지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군.

**당곡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만흥'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전라도 해남에서 생활할 때 지은 것이다. 작가는 혼탁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적들로부터 탄핵과 모함을 받아 수십 년간이나 유배와 낙향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자연 속에 은일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연군의 정을 드러낸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 ① '외'를 '님'보다 반갑게 여기는 것은 의도적으로 정적(政敵)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이다.
- ② '삼공(三公)'에 대한 이루지 못한 꿈을 자연에서 대신 찾으며 위안을 삼겠다는 뜻이다.
- ③ '소부허유(巢父許由)'의 삶이 몹시 부럽지만,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 ④ 강산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 '님군 은혜(恩惠)'라고 여기는 데서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임천한흥의 삶을 추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위정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3.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진 것은 사설시조의 형식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 ② 중장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많은 벌레들을 비유와 열거를 활용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 ③ 화자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대상은 종장의 '쉬프리'로 관념적 대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물기것'이 설 새 없이 화자를 물어뜯는 상황을 제시한 것은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⑤ 충효 사상이 아닌 실생활의 사실적 소재를 다룬 것으로 보아 서민(평민)이 창작한 작품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4. ㉠~㉣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탄식과 회한의 정서를 압축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② ㉡: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강산'과 대비되는 '청빈한 삶'을 비유하고 있다.
- ④ ㉣: 시적 화자를 가리키는 말로 착취당하는 백성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⑤ ㉤: '쉬프리'로 상징되는 탐관오리의 해악이 당시에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5.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른 것은?**

(다)는 ( ㉠ )을 활용하여 각종 별레의 종류를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별레들을 지칭하는 ‘물-기’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다)는 봉건적 질서가 붕괴되고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가 극심하던 조선시대 후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풍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물-기’의 속성과 윗글이 창작된 배경을 관련 지어 볼 때, ‘물-기’는 ( ㉡ )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 ㉠   | ㉡             |
|---|-----|---------------|
| ① | 의인법 | 지배층에 착취당하는 백성 |
| ② | 열거법 | 지배층에 착취당하는 백성 |
| ③ | 열거법 |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 |
| ④ | 활유법 |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 |
| ⑤ | 활유법 | 임금            |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학생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평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구조 속에서 45자 내외의 글자 수로 제한을 두는 등의 엄격함을 형식적 특징으로 삼고 있다. 또한 주 창작자인 양반 사대부의 성향에 맞추어 주로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시조는 조선 후기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시조의 창작 계층이 양반에서 일반 평민층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을 소재로 하여 일상적 삶에서 느끼는 정서와 모습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형식적 측면에서 요구되던 엄격함을 벗어나 다소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가 반영된 시조를 사설시조라 하는데, 윗글은 그러한 사설시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① 학생1: 초장과 중장, 종장의 구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에서, 평시조에서 보인 형식의 엄격함을 벗어나고자 했던 사설시조의 특징이 보이는구나.
- ② 학생2: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창작자는 양반 사대부가 아니라 평민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
- ③ 학생3: 별레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설시조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지.
- ④ 학생4: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레들을 주된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사물을 소재로 활용하고자 했던 사설시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네.

- ⑤ 학생5: 전체 글자의 수를 세어보니 45자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시조의 형식이 지닌 한계를 깨닫고 다소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는 사설시조의 특징이 나타나네.

**당곡고등학교 (서울)**

**7.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 삶이 글의 소재가 되고 있다.
- ② 대상을 풍자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심리가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 ④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서정 갈래에 해당한다.
- ⑤ 감탄의 어조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8. (가)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달리 [A]에는 시적 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가)와 달리 [A]는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가)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A]에는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가)에서는 영탄법을 통해, [A]에서는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9. (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아: ‘반가움이 이리허랴’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는 화자가 속세의 인물이 찾아온 것에 달가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상아: ‘만승(萬乘)이 이만허랴’를 통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세속적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수아: ‘소부 허유(巢父許由) | 낙뚝더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속세와 관련된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정아: ‘비길 곳이 업세랴’를 통해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흥취를 즐기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희아: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속세의 삶을 완전히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군.

## “수의 비밀” 분석 정리

‘당신’을 위한 ‘나’의 정성, 사랑의 징표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深衣)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 화자가 ‘당신’을 위해 지은 옷 - 주로 남자들이 입는 옷으로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나’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음.

▶ 1연: 당신의 옷을 다 짓고, 주머니에 수놓는 것만 남겨 둬.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주머니를 자주 만지작거렸음을 드러냄.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마무리를 지음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음.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

‘나’가 수놓기를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

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 ① -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주머니에 수를 놓으면 아픈 마음이 진정됨.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가치 있는 존재

그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 ②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수를 놓는 일은 입을 기다리는 행위이자 자기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임(역설적 표현)  
- 「님의 침묵」(1926)

▶ 2연: 옷 짓기를 멈춘 이유와 수놓기에 담긴 ‘나’의 마음

### 핵심 정리

교과서 20쪽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독백적, 의지적, 구도적, 상징적   |
| 제재 | 수놓기  |
| 주제 |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br>조국·민족·자유에 대한 지향<br>진리의 구도에 대한 염원            |
| 특징 | ① 수놓는 행위를 통해 추상적인 관념을 형상화함.<br>② 상징적·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

### 꼼꼼 정리

교과서 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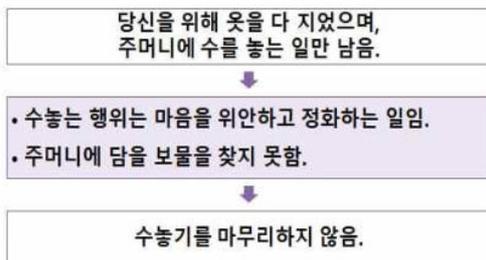
#### ● 비유적 표현

|                                       | 수의 비밀                         | 수놓는 행위의 의미                         |
|---------------------------------------|-------------------------------|------------------------------------|
|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고, 주머니에 수를 놓지 않음. |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수를 놓으면 마음이 맑아져서 |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고 정화하기 위한 행위            |
|                                       | 주머니 속에 넣을 보물이 이 세상에 아직 없어서    | 임을 위해 주머니에 담을 만한 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행위 |

### 꼼꼼 정리

교과서 20쪽

#### ●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대한 사랑을 임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여 표현한 시로, 1926년에 간행된 『님의 침묵』에 수록되어 있다. 상징과 역설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조국, 민족, 자유 등에 대한 지향을 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었다.

화자는 임의 옷을 다 만들었으나 주머니에 수놓는 것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수를 놓으려고 수없이 만지작거리 주머니에 자신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다고 한 것을 통해 수를 완성하려는 화자의 노력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바느질 실력이 부족해서 수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화자가 주머니의 수를 완성하지 못하는 비밀은 다른 데 있다.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수를 놓으면 신기하게도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 마음도 맑아진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에게 수놓는 행위가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고 정확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또 화자는 주머니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로 그 주머니 속에 넣을 귀한 보석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든다. 보석을 담지 못할 주머니를 완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머니에 계속 수를 놓으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다스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화자는 계속 수를 놓으며 주머니에 담을 만한 보석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 보석은 자신이 사랑하는 임과 잘 어울리는 가치 있는 존재일 것이다.

이처럼 이 시는 현실의 부정적 상황 속에서 시인의 마음을 비밀스럽게 표현한 작품이다. 상징과 역설의 방법을 구사한 것은 일제 강점하의 엄격한 검열 과정을 염두에 둔 선택일 것이다. 그 점도 문학과 역사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의 비밀” 교과서 활동 문제**

**1. 이 시를 소리 내어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다음 시어나 시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 보자.

|              |  |
|--------------|--|
| <b>수놓는 것</b> | <b>옷 짓기를 마무리하는 임, 입을 기다리는 행위, 임에 대한 사랑</b> |
| <b>손때</b>    | 수를 놓다가 그만두는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된 흔적                |
| <b>맑은 노래</b> | 수놓는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과 정확                |

(2) (1)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 보자.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는 임을 위해 옷을 다 지어 놓았지만 주머니에 수놓는 것은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다.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으면 마음의 위안과 정확을 얻을 수 있으므로, 화자는 수놓기를 계속하고 있다.

(3) 화자에게 ‘수의 비밀’이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수의 비밀**

- 바느질 솜씨가 없어서 수놓기를 끝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고 정확하고 싶어서 화자는 수를 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 임에게 어울리는 보물을 찾을 때까지 일부러 수놓기를 마치지 않고 옷의 완성을 미루고 있다.

**2. 다음을 참고하여,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해 보자.**

‘역설’이란 겉으로 보기에 부조리해 보이는 ‘모순적 측면’을 지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진실된 의미’를 담고 있는 진술을 말한다. 화자는 역설을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과 사고를 일깨워 주기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

**(1) 이 시에서 역설적 표현이 쓰인 구절을 찾아보자.**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2) (1)에서 찾은 구절에서 ‘모순적 측면’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짓고 싶으면 짓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서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말이다.

**(3) (1)에서 찾은 구절을 통해 화자가 드러내려는 ‘진실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수를 놓는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과 정확을 얻기 때문에, 수놓기를 계속하고 싶어서(짓고 싶어서) 일부러 수를 짓다가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하며 끝내지 않는 것(다 짓지 않는 것)이다. / •임의 옷에 어울릴 만한 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는 옷을 짓기 위해서(짓고 싶어서) 아직 옷을 완성하지 않는 것(다 짓지 않는 것)이다.

**3. 다음을 참고하여,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측면에서 이 시를 감상해 보자.**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좌시할 수 없던 만해 한용운은 출가 이후 민족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민족 불교의 성립을 위해 임제종 운동을 펼친 것은 물론, 일제 식민지 정책의 허상을 비판하면서 3·1 운동을 이끌기도 하였다. 그의 시집 『님의 침묵』은 언론 탄압이 극심해지던 1920년대, 자유를 억압하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님만 님이 아니라 그룬 것은 다 님이다.”, “해 저문 별판에서 도러가는 길을 일코 해매는 어린양이 그루어서 이 시를 쓴다.”라는 시집 앞부분의 「군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이 시의 ‘당신’은 어떠한 대상을 가리킬지 생각해 보자.**

사랑하는 사람, 조국, 민족, 절대자, 진리, 자유 등

**(2) 이 시의 2연에서 화자가 말한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의 의미는 무엇일지 말해 보자.**

‘보물’은 사랑하는 임과 잘 어울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의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즉 조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님의 침묵” 구절 심인

교과서 · 204쪽 1연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중략)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 ‘당신(임)’의 옷을 다 지어 놓았다는 것에서 그 옷을 입을 대상이 현재 함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임을 위해 옷을 짓는 행위는 그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화자는 주머니에 수놓는 것을 멈추어 옷이 완성되는 순간을 미루고 있다.

교과서 · 204쪽 2연 1~2행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 화자는 주머니에 손때가 묻을 정도로 옷을 짓다가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한다. 옷이 완성되면 그 옷을 입을 임이 부재하는 상황이 환기되므로, 그러한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옷의 완성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 204쪽 2면 4행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에 ……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 화자는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수놓기를 하면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자신의 마음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수를 놓는 과정에서 화자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내면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화자는 수놓기를 계속하고 싶어서 일부러 종결을 미루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화자가 지닌 '수의 비밀'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 · 204쪽 2면 5행

그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 화자는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기 때문에 옷을 완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이 화자가 수놓기를 끝내지 않는 두 번째 비밀이다. 이때 보물은 임과 잘 어울리는 가치 있는 존재를 말하는데,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세상에서 그러한 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자는 보물을 찾을 때까지 수놓기를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교과서 · 204쪽 2면 6행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수놓기를 끝내지 않고 계속하는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수를 놓는 일은 임을 기다리는 행위이자 자기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하기 위해서 화자는 옷을 다 짓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임의 옷에 어울릴 만한 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는 옷을 짓기 위해 아직 옷을 완성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를(深衣)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A]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한용운, '수의 비밀'

**당곡고등학교 (서울)**

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으로 보아 화자가 남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은 화자가 주머니를 자주 만지작거렸음을 드러낸다.
- ③ ㉢은 화자가 바느질 실력이 부족해서 수놓기를 꺼리는 것을 말한다.
- ④ ㉣은 가치 있는 존재를 의미하며, 화자가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 ⑤ ㉤은 수놓는 행위를 통해 화자가 얻는 마음의 위안과 정확을 상징한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2.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A]와 다른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 ②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③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흐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유치환, '깃발'

- ④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늑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정지용, '유리창'

- ⑤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沈黙)을  
헛싸고 돕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을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추상적인 관념을 형상화하고 있어.
- ②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가 표면에 드러나 있어.
- ③ 상징적·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 ④ 이 시를 지은 시인의 다양한 활동을 떠올려 보면, '당신'이 가리키는 대상 또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어.
- ⑤ 이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어서, 그 안타까움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느낌이야.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4.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기>

화자가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는 화자의 심리 차원에서 보면 수놓기를 통해 ( ㉠ ) 때문이고,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인은 '진실된 의미'를 담고 있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측면'을 지닌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윗글의 ( ㉡ ) (이)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를(深衣)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  
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  
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한용운, '수의 비밀'

**현대청운고등학교 (울산)**

5.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 고백적인 어투로 말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수를 놓다가 말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 ③ 높임말을 사용하여 경건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 ④ 구체적 행위를 통해 추상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수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현대청운고등학교 (울산)**

6.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 관련 깊은 한자 성어는 '화룡점점(畫龍點睛)' 정도가 될 수 있겠군.
- ③ ㉢: 화자가 수를 놓기 시작한 것이 오래된 일임을 알 수 있겠군.
- ④ ㉣: 화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오해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군.
- ⑤ ㉦: 시대적 상황이나 시인의 삶을 고려하여 해석해 본다면, '보물이 생기는 것'은 '조국의 광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

**현대청운고등학교 (울산)**

7.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에 사용된 수사법과 동일한 표현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몇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죽위에서 취객(醉客)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겨울 지난 삼륜차는 그것이 쓰레기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기형도, '안개'
- ②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瀑布)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김광균, '추일서정'
- ③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서정주, '문둥이'
- ④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향수'
- 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조지훈, '승무'

**현대청운고등학교 (울산)**

8. 화자가 수를 완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 2 가지를 서술하시오.

# “조신의 꿈” 꿈역 명리

| 핵심 정리 |  |
|-------|--|
| 갈래    | 설화(전설), 환몽 설화  |
| 성격    | 환몽적, 교훈적, 불교적  |
| 배경    | 신라 시대 명주 날리군   |
| 주제    | 인간의 욕망과 집착의 무상함  |
| 특징    | ①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로, 몽자류 소설의 근원이 됨.<br>② 구체적인 지역과 증거물 등 전설로서의 특징이 나타남. |

| 꿈꿈 정리  |  |
|--|--|
| ● 꿈속에서의 삶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난으로 인해 떠돌아다니며 구걸함.</li> <li>큰아들이 굶어 죽고, 딸아이가 구걸하다가 개에게 물림.</li> <li>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림.</li> <li>부부가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헤어짐.</li> </ul> |  |
| ↓  |  |
| 조신에게 세속적 삶의 고통을 깨닫게 함.   |  |

| 꿈꿈 정리   |  |
|---|--|
| ● ‘꿈’의 역할   |  |
| 조신이 꿈에서 김흔의 딸과 인연을 맺어 욕망을 성취하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이별을 맞으면서 깨어남. |  |
| ↓   |  |
| <b>꿈</b>  |  |
| 조신의 욕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세속적인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장치      |  |

| 꿈꿈 정리           |                             |
|-----------------|-----------------------------|
| ● 꿈을 통한 조신의 깨달음 |                             |
| 꿈을 꾸기 전         | 세속적 욕망을 추구함.                |
| ↓               |                             |
| 꿈속              |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나 삶의 고통과 불행을 겪음. |
| ↓               |                             |
| 꿈에서 깨어난 후       |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고 불도에 정진함.   |

##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인생의 무상함과 욕망의 덧없음을 하룻밤의 꿈을 통해 깨달은 조신의 삶을 다룬 신라 때의 설화이다. 서사 갈래의 초기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작품으로서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승려 조신은 태수의 딸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관음보살에게 그녀와 부부가 되어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한 바람을 이루지 못해 실의에 빠져 있던 조신은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태수의 딸과 부부가 된다. 꿈속의 조신은 처음에는 그녀와의 삶이 몹시 즐거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신 부부는 늙고 병들었고, 자식들은 굶어서 죽거나 구걸을 하였다. 그들에게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결국 조신의 아내는 조신에게 헤어질 것을 제안하고, 각자 거처를 찾아가던 중에 조신은 꿈에서 깨어난다. 이로써 서사는 다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고 이때부터 조신은 ‘세속을 탐하는 마음’을 완전히 떨쳐 낸다. 이처럼 이 작품은 욕망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훈이 ‘현실-꿈-현실’의 서사 구조를 통해 드러나 있다. 또 인물들의 성격도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서사 갈래로서의 성격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처럼 ‘꿈’이라는 서사 장치는 어떠한 삶의 이치나 철학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후대에 등장한 「구운몽」이나 「옥루몽」 등의 몽자류 소설에서 그러한 예를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고, 「원생몽유록」과 같은 몽유록계 서사 문학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후대 서사 갈래의 형성과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조신의 꿈” 교과서 활동 문제

### 1. 이 작품의 흐름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꿈’을 기준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

| 구분        | 사건의 흐름  |
|-----------|---|
| 꿈을 꾸기 전   | 승려 조신은 태수 김흔의 딸을 연모하게 되어 그와 맺어지게 해 달라고 관음보살에게 빌지만 김흔의 딸에게 다른 배필이 생긴다. 조신은 관음보살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잠이 든다.          |
| 꿈속에서      | 꿈에 김흔의 딸이 조신을 찾아와 인연을 맺고 사십여 년을 함께 살며 다섯 자식을 둔다. 그러나 가난한 삶이 계속되어 자식이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자, 두 사람은 각자 아이를 둘씩 데리고 헤어져 살기로 한다. |
| 꿈을 꾸고 난 후 | 꿈에서 깬 조신은 세속적 욕망의 무상함을 깨닫는다. 그는 꿈에서 죽은 자식을 묻은 장소에서 나온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정토사를 지어 수행한다.                                |

(2) 이 작품에서 ‘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해 보자.

주인공인 조신이 욕망하던 삶을 하룻밤 사이에 대신 경험하게 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지나는 욕망의 덧없음과 삶의 괴로움을 깨닫게 하고 있다.

### 2.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설화의 특성을 아래에 보자.

#### 보기

설화는 구비 문학의 일종으로 각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신화는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로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의 사적(事績), 민족의 태고 때의 역사 등을 주로 다룬다. 전설은 어떤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 이상한 체험 따위를 소재로 한 이야기이다. 전설 속 사건은 대체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진행되는데, 해당 전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이 실재하는 경우가 많다. 민담은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과 장소가 막연한 경우가 많으며, 이야기의 증거물이 중시되지도 않는다.

(1) 이 작품이 ‘신화’, ‘전설’, ‘민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자.

이 작품은 전설에 해당한다.

(2) (1)에서와 같이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말해 보자.

이 작품은 조신의 이상한 체험(하룻밤의 꿈)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신라 시대, 명주 날리군, 강릉 해현령 등)를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또 ‘돌미륵’이나 ‘정토사’ 등을 증거물로 삼아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며, 사찰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꿈’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보기’는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몽자류 소설인 『구운몽』의 줄거리이다. 이 작품과 『구운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자.

보기

육관 대사의 명을 받아 용궁에 간 성진은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 수작을 부린다. 절에 돌아온 성진은 팔선녀를 생각하다 인간 세상에 추방되어 양소유로 태어난다. 팔선녀 역시 인간으로 태어나 양소유와 차례로 인연을 맺는다. 그사이 나라에 공을 세운 양소유는 승상이 되고, 자신의 부인과 첩이 된 팔선녀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여생을 보내던 양소유는 두 명의 부인과 여섯 명의 첩과 함께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이때 도승이 나타나 성진의 꿈을 깨운다. 꿈에서 깬 성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육관 대사에게 가르침을 구하며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팔선녀 역시 불제자가 되어 성진과 함께 극락왕생한다.

- 공통점: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취하고 있다. / 꿈에서 한평생을 사는 경험을 한 후, 그 경험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등
- 차이점 : 「조신의 꿈」의 조신은 꿈에서 고달픈 삶을 살며 괴롭고 슬픈 일을 주로 경험하지만, 「구운몽」의 성진은 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영광스러운 일을 주로 경험한다. / 「조신의 꿈」의 등장인물은 평범한 사람인 데 반해 「구운몽」의 등장인물은 비현실적 세계의 인물로 그려진다. 등

**(2)** (1)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 작품과 같은 설화의 문학사적 의의를 이야기해 보자.

「조신의 꿈」에 나타난 환몽 구조는 「구운몽」 등 몽자류 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설화는 그 내용과 형식이 후대의 소설 문학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신의 꿈” 읽고 생각하기

**1. 지명과 인명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서사에 사실성을 더해 독자들이 작품 속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이야기에서 ‘돌미륵’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조신이 꿈에서 조신은 해현령 근처에 큰아들을 묻는다. 현실로 돌아온 조신이 해현 근처에서 찾은 돌미륵은 조신이 꿈 속에서 현실과도 관련이 있으며, 부처의 가르침으로 인한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또한 돌미륵은 이 전설의 구체적 증거물로서,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해 주기도 한다.

## “조신의 꿈” 단원 학습

교과서 · 212쪽 3~4행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世達寺) — 지금의 흥교사(興敎寺)다. — 의 장원이 명주(溟州)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다.

- 서사의 배경이 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이 설화가 특정 지역의 전설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이 「삼국유사」라는 역사서에 실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편찬한 일연이 설화의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기술하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 212쪽 10~12행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 김흔의 딸과 인연이 맺어지기를 관음보살에게 비는 조신의 모습은 그의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지와, 종교에 귀의한 승려인 그가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녀와 맺어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녀에게 배필이 생김으로써 조신의 소망은 좌절된다.

교과서 · 212쪽 12~15행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 소망의 좌절에 불만을 품고 관음보살을 원망하던 조신은 현실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게 된다. 이 부분이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입몽’에 해당한다.

교과서 · 212쪽 19~22행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 꿈에서 조신은 김흔의 딸과 인연을 맺고 40여 년의 세월을 함께 살며 자식 다섯을 두었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낸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인 인생의 괴로움을 집약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욕망을 이루는 것이 현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교과서 · 212쪽 24행~213쪽 1행

강릉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羽曲縣) — 지금의 우현(羽縣) — 에 도착하여 길가에 떠돌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 ‘강릉 해현령’이나 ‘우곡현’과 같은 구체적 장소를 언급함으로써 서사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조신과 아내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아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심했음을 알 수 있는데, 큰아들을 해현령 근처에 묻는 사건은 꿈을 깬 이후 돌미륵을 얻는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꿈과 현실을 연결한다.

교과서 · 213쪽 5~13행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결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 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세속적 쾌락에 이끌린 선택은 현실적 한계 속에서 불행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사랑과 행복이 힘들다는 것을 아내의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교과서 · 213쪽 26~29행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 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되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 조신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으로, ‘각몽’에 해당한다. 하룻밤의 꿈에 불과하지만, 그 꿈속에서 사십여 년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신은 한평생의 삶이 고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속을 탐하는 마음 역시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교과서 · 214쪽 2~4행

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 꿈을 통해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달은 조신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부처님께 바치고, 수행을 통해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世達寺) — 지금의 흥교사(興敎寺)다. — 의 장원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다. — 『지리지』를 살펴보면, 명주에 날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捺城郡)이 있는데, 본래 날생군(捺生郡)으로 지금의 영월(寧越)이다. 또 우수주(牛首州) 영현(領懸)에 날령군(捺靈郡)이 있는데 본래는 날이군(捺已郡)으로 지금의 강주(剛州)이다.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날리군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 본사(本寺)에서는 승려 조신(調信)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죽어도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집이라곤 네 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주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달수 없어 마침내 실의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백 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羽曲縣) — 지금의 우현(羽縣) — 에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열 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오십 년 동안 정분은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이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결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운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 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의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에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버들 솜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백 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현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 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조신의 꿈’

**김해물하고등학교 (경남)**

**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내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 ② ㉡: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여 조신 부부의 삶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③ ㉢: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젊은 날의 행복과 금석맹약이 허무한 것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 ④ ㉣: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⑤ ㉤: ‘돌미륵’은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해울하고등학교 (경남)**

**2.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가장 유사한 시조는?**

- ① 靑草(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엇는다  
紅顏(홍안)을 어디 두고 白骨(백골)만 무쳤논이  
齏(잔) 자바 권허리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라
- ② 가마귀 썬호는 골에 白鷺(백로)야 가지 마라  
성년 가마귀 흰빛출 시울세라  
淸江(청강)에 쥌히 씨슨 몸을 더러일가 호노라
- ③ 아버지님 날 나호시고 어머니님 날 기르시니  
父母(부모)웃 아니시면 내몸이 업실났다  
이 덕을 갑허려 하니 하늘 7이 업스샷다
- ④ 梨花(이화)에 月白(월백)호고 銀漢(은한)이 三更(삼경)인 제.  
一枝春心(일지 춘심)을 子規(자규)야 아라마는.  
多情(다정)도 병인 양호야, 줌 못 드러 호노라.
- ⑤ 구름이 無心(무심)튼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호다  
中天(중천)에 썬이서 任意(임의)로 든니면서  
구둑야 光明(광명)호 날빛출 썬라가며 덤느니

**김해울하고등학교 (경남)**

**3.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주인공 조신이 사모하던 여인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욕망을 성취하지만, 이후 참담한 고통을 겪는 것을 꿈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욕망이나 그 성취는 한갓 꿈에 불과한 것이며,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원은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이라는 불교적 가르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 설화는 ‘㉠현실-㉡꿈-㉢현실’이라는 전형적인 환몽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가운데의 ‘꿈’ 부분이 내화(內話)이고 바깥의 ‘현실’ 부분이 외화(外話)로서 액자식 형태이기도 하다. 현실에서의 어떤 집요한 생각 때문에 꿈 속에서 이와 연관된 사건을 체험하고 꿈을 깬 뒤 참된 이치를 깨닫게 되는 구조를 가진 설화를 ‘환몽 설화’라고 한다.

- ① ㉠에서 주인공이 김흔의 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관음보살에게 비는 집요함이 ㉡로 가는 계기가 된다.
- ② ㉡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원한 삶을 성취하였으나 그로 인해 참담한 고통을 겪게 된다.
- ③ ㉡를 경험하고 ㉢로 돌아온 주인공은 ㉠에서 가졌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된다.
- ④ ㉡의 경험에서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불교적 가르침이 드러난다.
- ⑤ ㉡를 통해 얻게 된 참된 이치는 ㉢에서 주인공이 정통사를 짓고 수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김해울하고등학교 (경남)**

**4. 조신의 꿈을 전설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쓰고 근거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시오.**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5.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2개 고르시오.**

- ① 입몽과 각몽이 필연적 사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② 사건의 전개 양상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환몽구조이다.
- ④ ‘신라시대’, ‘강릉 해현령’과 같이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
- ⑤ 등장인물은 주로 비현실적 세계의 인물이다.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6. 뒷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꿈속에서 조신과 그 아내가 헤어진 실제적인 이유는 가난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다.
- ② 꿈속에서 조신은 가족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슴 아파한다.
- ③ 조신의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는 것은 현실에서 급격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 ④ 꿈에서 깬 조신은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고 장원을 관리하는 임무에 전념하였다.
- ⑤ 죽은 아이를 묻은 자리에서 나온 돌미륵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세달사에 모셨다.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7. ‘부부간의 언약’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구절을 찾아 쓰시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世達寺) — 지금의 흥교사(興敎寺)다. — 의 장원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다. — 『지리지』를 살펴보면, 명주에 날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捺城郡)이 있는데, 본래 날생군(捺生郡)으로 지금의 영월(寧越)이다. 또 우수주(牛首州) 영현(領懸)에 날령군(捺靈郡)이 있는데 본래는 날이군(捺已郡)으로 지금의 강주(剛州)이다.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날리군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 본사(本寺)에서는 승려 조신(調信)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①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역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죽어도 같은 무덤에 묻힐 벼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집이라곤 네 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주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딸 수 없어 마침내 실의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매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백 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②열다섯 살 된 큰 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羽曲縣) — 지금의 우현(羽縣) — 에 도착하여 길가에 띠포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열 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오십 년 동안 정분은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이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결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운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 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의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에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③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거나 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④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⑤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백 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현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 보았더니 ⑥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조신의 꿈’

**중산고등학교 (서울)**

**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종교적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다.
- ② 서술자의 시점 변화가 여러 번 나타난다.
- ③ 영웅의 전 생애가 담긴 일대기적 구성이다.
- ④ 현실과 과거를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 ⑤ 여러 개의 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사씨남정기” 분석 정리

## 핵심 정리

교재서 218-22쪽

|           |                                   |
|-----------|-----------------------------------|
| <b>갈래</b> | 국문 소설, 가정 소설                      |
| <b>성격</b> | 교훈적, 풍간적                          |
| <b>배경</b> | 중국 명나라 일대                         |
| <b>시점</b> | 전지적 작가 시점                         |
| <b>주제</b> | 처첩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 씨의 고행, 권선징악(勸善懲惡) |

## 핵심 정리

교재서 21쪽

### 특징

- ① 일부다처제로 인한 처첩 간의 갈등을 형상화함.
- ② 선과 악의 대립적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함.
- ③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함을 풍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됨.

## 꼼꼼 정리

교재서 218-22쪽

### ● 교 씨의 교묘한 언행

- 평상시와 달리 노래 부르기와 거문고 타기를 거부함.
-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펄펄 흘림.
-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이라고 말함.

한림이 사 씨에게 의혹을 품도록 부추김.

## 꼼꼼 정리

교재서 218-22쪽

### ● 교 씨의 모함에 대한 한림의 반응

한림은 평소 품행이 바른 사 씨를 신뢰하고 있었음.

사 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 씨의 말이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여김.

사 씨의 본래 성품이 어질다는 것을 밝히고 자신이 지켜 줄 것이라고 말하며 교 씨를 안심시킴.

## 꼼꼼 정리

교재서 218-22쪽

### ● 사씨와 교씨의 성격

**사 씨**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한 인물로, 품행이 바르고 타인을 신뢰함.



**교 씨** 선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위선적이며 교활하고 사악함.

## 꼼꼼 정리

교재서 218-22쪽

### ● 서술자의 개입

“아아! 옛말에 이르기를 .....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서술자가 직접 인물을 평가하고 상황에 대해 해설하며 문제의식을 제기함.

## 꼼꼼 정리

교재서 22쪽

### ● 작품의 의의

-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고 유교적 교훈을 전달함.
- 가정 내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 축첩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
- 구성이 치밀하고 사건간 인과 관계가 뚜렷하여 우연성이 적음.

**의의** 가정 소설의 영역을 개척하고 후대 가정 소설의 모범이 됨.

## 꼼꼼 정리

교재서 22쪽

### ● 「사씨남정기」의 창작 배경

| 역사적 사건                            | 「사씨남정기」                           |
|-----------------------------------|-----------------------------------|
|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희빈 장 씨를 중전으로 책봉함. | 유 한림이 사 씨를 내쫓고 첩인 교 씨를 정실부인으로 삼음. |



인현 왕후의 폐비 사건이 부당함을 드러내어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됨.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한글 소설이다.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처첩 갈등, 정쟁(政爭)과 유배 등을 통해 창작 당시 조선의 사회적 현실을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희빈 장 씨를 중전에 책봉한 사건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사 씨의 권고에 의해 첩으로 들어온 교 씨가 본처인 사 씨를 모함하기 위해 간계를 쓰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 장면을 통해 작가는 처첩 갈등과 그 배경, 가부장의 자질 등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갈등 관계에 놓인 사 씨와 교 씨는 각각 선과 악을 대표하는 인물 유형에 해당하는데, 사 씨가 현모양처로서 성품이 곱고 착한 여인의 전형이라면 교 씨는 위선적이고 교활한 악인의 전형이다. 이러한 인물 유형을 통해 사 씨와 같은 여인의 부덕(婦德)을 높이는 동시에 교 씨와 같은 악인은 패망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이것이 세상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아, 당대에 널리 읽힌 것은 물론 후대에도 전승되었다. 김만중의 종손인 김춘택은 양반 남성 독자들을 위해 이 작품을 한문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사씨남정기」는 상하 계층 남녀 독자들에게 모두 애호를 받으며 유통되었다. 이 작품은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 냄으로써 소설사에서 가정 소설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사씨남정기” 큰마신 탐방 문제**

**1. 이 소설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행동 등을 근거로 하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

| 인물   | 인물의 생각이나 행동   | 성격   |
|------|---|--|
| 사 씨  | 가정을 위해 첩을 들이기로 하였으며, 첩인 교 씨를 시기하지 않고 바른길로 인도하고자 함.      |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하며, 어질고 타인을 신뢰하여 진심으로 대함.             |
| 교 씨  | 사 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 한림에게 사 씨를 모함함.                     | 배은망덕하고 교활하며, 간악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
| 유 한림 | 교 씨의 말을 듣고 교 씨를 위로하면서도 사 씨를 의심하지 않았으나, 교 씨의 간계를 깨닫지는 못함 | 배려심이 있고 믿음이 두터우며 신중한 성격이나, 사람의 됴됨이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함. |

**(2)**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말해 보자.

|  |   |
|--|---|
| <b>서술자가 개입한 부분</b>                               | <b>효과</b>   |
| 아아! 옛말에 이르기를, ..... 아니 할 수 있겠는가? (교과서 221쪽 1~8행) |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사건의 정황을 해설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처첩 제도에 따른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

**2.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소설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이해해 보자.**

**(1) 유 한림이 교 씨를 첩으로 들인 이유를 말해 보자.**

유 한림과 사 씨가 결혼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사 씨가 유 한림에게 첩을 들여 대를 이을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

**(2) 교 씨가 사 씨를 모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자.**

교 씨는 첩이라는 지위에 불만과 불안감을 느껴, 사 씨를 모함하여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관습을 찾아보고, 오늘날과 비교해 보자.**

이 작품에는 한 남편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관습인 일부다처(一夫多妻) 또는 일부처첩(一夫妻妾)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법제화된 오늘날에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3. (가)는 이 소설을 쓴 작가의 말이고, (나)는 이 소설에 관한 당대의 평가이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가) 소식의 『동파지림』에 이런 말이 있다. “거리의 어린아이들은 천박하고 수준이 낮은데, 집안사람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아주 질리게 되면, 돈을 주어서 모아 앉혀 두고 옛날이야기를 듣게 했다. 이야기가 삼국의 일에 이르러 유현덕이 패하는 것을 듣게 되면 눈썹을 찡그리고 찌푸리다가 우는 놈마저 있다. 조조가 패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즐거워해서 노래하며 기뻐했다.” 이것이 곧 나관중의 「삼국지연의」가 생겨난 시원이 아니겠는가? 이제 만일 진수의 『삼국지』나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대본으로 삼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통속 소설이 지어지는 이유이다.  
- 김만중, 『서포만필』 중에서

(나) 서포는 속언(俗言)으로 많은 소설을 지었다. 그 가운데 「남정기」라 하는 것은 할 일 없이 지은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패관 소설은 황탄하지 않으면 경박하고 화려한데,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교(世敎)에 도움이 되게 할 만한 것은 오직 「남정기」 뿐이다.  
- 김춘택, 『북헌집』 중에서

**(1) 작가가 이 소설을 창작한 의도를 추측해 보자.**

(가)에서는 역사서와 달리 소설이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 주기 때문에 통속 소설이 창작된다고 하였다. (나)에서는 이 소설이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교훈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작가는 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소설로 창작하여 독자들이 이를 읽고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는 과정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 이 소설이 어떤 독자층에서 주로 읽혔는지 이야기해 보자.**

현숙한 사 씨가 복권(復權)되고 사특한 교 씨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으므로, 유교적 도리와 부덕(婦德)을 강조했던 당대의 풍토에서 여성 독자뿐만 아니라 식자층에게 폭넓게 읽혔을 것이다. 또 가정 내의 갈등을 다루고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내어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독자층에서 읽혔을 것이다.

**4. 이 소설과 관련된, 다음 활동을 모둠별로 해 보자.**

**(1) ‘숙종-인현 왕후-장 희빈’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조사해 보고, 이 소설의 이야기 구조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살펴보자.**

|    | 역사적 사실  | 「사씨남정기」   |
|----|---|---|
| 인물 | 숙종 - 인현 왕후 - 장 희빈   | 유 한림 - 사 씨 - 교 씨  |
| 사건 | 인현 왕후는 덕성이 뛰어나고 왕후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으나 왕자를 낳지 못했다. 숙종은 후궁인 장 희빈을 총애하였는데, 장 희빈은 중전이 되기 위해 간계를 부려 인현 왕후가 폐위되도록 한다. 이후 장 희빈의 음모가 밝혀져 인현 왕후가 복위되고 장 희빈은 죽음을 맞는다. | 현숙한 처인 사 씨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교 씨를 첩으로 들이게 한다. 아들을 낳은 교 씨는 사 씨도 아들을 낳자, 자신의 지위에 불안함을 느껴 흉계를 써서 사 씨를 집안에서 내쫓는다. 유 한림과 다시 만난 사 씨는 가정으로 돌아와 영화를 누리고, 교 씨는 응징된다. |

## “사씨남정기” 원고 중 원고

### 1. 교 씨가 노래 부르기와 거문고 타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 씨는 사 씨를 모함하기 위해 노래 부르기와 거문고 타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장부(한림)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사 씨의 충고를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는 사 씨를 질투가 많은 여인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이다.

### 2. 교 씨가 묘사하는 사 씨는 어떤 인물인가?

교 씨는 한림에게 사 씨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면서 사 씨가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교 씨에 말에 의하면, 사 씨는 작은 일로 첩을 책망하고 투기하는 사람, 처첩 간의 위계를 중시하여 첩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 “사씨남정기” 구절 원고

교과서 · 218쪽 7~9행

한림은 비로소 관직에 나아갔다. 천자는 장차 그를 크게 쓰려 하였다. …… 그런데 엄 승상(嚴承相)이 그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해가 지나도 관직은 올라가지 않았다.

○ 유 한림이 천자에게 총애를 받았음에도 엄 승상이 그를 기꺼워하지 않아 관직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엄 승상이 권력을 쥐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후에 엄 승상에 의해 유 한림에게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교과서 · 218쪽 10~14행

그들이 성혼한 지도 또한 십 년 가까이 흘러갔다.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다. (중략) 사 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하였다.

○ 사 씨는 결혼한 후 십 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식을 얻기 위해 첩을 둘 것을 한림에게 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던 당대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일부다처제가 용인되던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 218쪽 20~23행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야.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다는 말인가?”

○ 처첩 제도의 부정적 면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두 부인의 말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십 년 가까이 자녀가 없던 사 씨는 첩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집안의 어른인 두 부인은 한 집안에 두 여인이 드는 것이 가정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교과서 · 219쪽 7~9행

“일처일첩(一妻一妾)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첩에게 비록 관저(關雎)의 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세속 부녀자들의 투기하는 습속을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 사 씨가 옛날 법도나 사회적 분위기에 순응하는 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 일부다처제로 인한 처첩 간의 투기로 사회적 문제가 있었으며, 투기하지 않는 것이 부녀자의 덕목이었던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교과서 · 219쪽 26~27행

“하문(下問)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 교 씨는 노래 부르기와 거문고 타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사 씨 부인 때문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면서 사 씨가 어질지 못하다고 음해하고, 동시에 자신이 사려 깊고 사 씨의 말을 잘 따르는 후실(첩)이라는 점을 한림에게 드러내려 하고 있다.

교과서 · 220쪽 7~14행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에게서 첩을 불러 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 교 씨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려던 사 씨 부인의 말을 부풀려 모함하고 있다.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여 태후(呂太后)가 척 부인(戚夫人)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병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와 같이 상대를 폄박하는 말은 교 씨가 꾸며 낸 말에 해당한다. 사 씨가 현숙한 부인이 아니며 자신을 질투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여 한림을 속이려는 교 씨의 간악함이 드러난다.

교과서 · 220쪽 21~23행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 아마도 교 씨의 말이 실정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 유 한림이 사 씨의 성품을 고려하여 교 씨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림은 평소 교 씨를 후히 대하던 사 씨의 행실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과서 · 221쪽 1~8행

아이!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 추호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 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 ◎ 교 씨의 모함에 대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평소 교 씨의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한 것에 속아 사 씨가 교 씨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것과, 교 씨에 대한 사 씨의 충고가 진정 교 씨를 위한 것이었음을 서술자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또한 '큰 재앙의 뿌리'라는 표현을 통해 부부와 처첩 간의 문제가 유 한림 집안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교과서 · 221쪽 14~15행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 한림은 모든 것이 교 씨의 흉계에 의한 것임을 알고, 교 씨와 동청을 처벌한다. 그리고 사 씨를 만나 영화를 누린다.

- ◎ 결말에서 악인 교 씨와 동청이 처벌을 받고 선인 사 씨가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고 유 한림과 함께 영화를 누린다는 점에서 '사필귀정', '권선징악'이라는 소설의 주제가 드러난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 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구슬피 울었다. 한림이 굳이 그 까닭을 물었다.

마침내 교 씨가 입을 열었다.

“하문(下問)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을 하지 않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는 않을 것이야. 숨기지 말고 어서 말씀하게.”

교 씨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하여 못한 재주를 드러냈던 것일 따름입니다.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 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내가 우선 경으로부터 해 두겠다. 네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 후(呂太后)가 척 부인(戚夫人)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병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A]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는 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청덕(淸德)이 소첩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교 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 씨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도 들어 본 적이 없었어. 아마도 교 씨의 말이 실정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한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 씨를 위로하였다.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의 권고를 따른 일이었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지. 이 일은 아마 비복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참언을 하였기에 부인이 잠시 노하여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성품이 본시 유순하니 자네를 해치려 하지는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말게. 하물며 내가 있질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교 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다만 한림에게 사례할 따름이었다.

아아!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교 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

[B] 였다. 따라서 사 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었다. 경계한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또한 교 씨를 바른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후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 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조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한림은 교 씨의 간계를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사 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교 씨는 다시 참조를 행할 수 없었다.

**뒷부분의 줄거리** ▶ 사 씨가 아들 인아를 낳자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진 교 씨는 문객(門客) 동청과 짜고 친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 씨를 모함한다. 교 씨의 흥계로 집에서 쫓겨난 사 씨는 수월암에서 생활한다. 한편 유 한림은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되고, 동청은 유 한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관이 된다.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 한림은 모든 것이 교 씨의 흥계에 의한 것임을 알고, 교 씨와 동청을 처벌한다. 그리고 사 씨를 만나 영화를 누린다.

-김만중, ‘사씨남정기’

**신목고등학교 (서울)**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가가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함을 풍간하기 위한 목적 소설이다.
- ②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 ③ 당시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교씨’가 느끼는 위기감이 ‘교씨’가 저지른 악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④ 악행을 저지른 ‘교씨’가 징벌을 받는 것으로 결말을 맺어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사씨’는 부덕(婦德)을 갖춘 인물로 투기하지 않기 위해 ‘교씨’의 음해를 모른 척하고 있다.

**신목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참고로 이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를 읽는 사람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으나 사 씨가 고난에 처해서도 지킨 절개와 한림의 개과한 아름다움이 모두 하늘에 뿌리를 두고 본성에 갖추어져서 그리된 것에 감동함이 아니겠는가. 읽는 사람이 통분하고 눈을 흘기는 것은 또 교 씨와 동청의 악행 때문이 아니겠는가. <중략> 그런데 선생께서 언문(諺文)으로 지으신 것은, 대개 여항부녀(閨巷婦女)들로 하여금 읽고 외우며 보아서 감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니 참으로 우연한 일은 아니다.

- ① 선과 악을 상징하는 인물을 대립하고 그들을 대립시킴으로써 고전 소설에서 사건 전개에 개연성 부족을 극복하였던 거야.
- ②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사대부 계층뿐 아니라 평민 계층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겠다.
- ③ 인문으로 지어 널리 읽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시 축첩제도에 대한 여항 부녀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셈이지.
- ④ 외모와 조건으로 결혼하는 풍습이 정치에 미친 영향력을 고발하여 가정과 정치의 연관 관계가 재정립되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지.
- ⑤ 본성은 착하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회 현실에 무능력한 양반 사대부 중심의 유교사회를 비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어.

**숭의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림은 교 씨의 말을 들은 이후로 처첩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 ② 교 씨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한림의 태도에 대해 원망의 말로 호소하고 있다.
- ③ 사 씨가 질책한 부분은 음란한 음악이 아니라 교 씨가 자신의 미색만 꾸미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 ④ 한림은 교 씨가 사 씨를 모함하려는 의도로 실제 일을 과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⑤ 교 씨는 첩이라는 지위에 불만과 불안감이 있기에 사 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계책들을 꾸미는 것이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인과 악인의 대립 구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 ② 가정 내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정황을 해설해주고 있다.
- ④ 악인을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립적인 인물들 간의 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부각되고 있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서울)**

**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교 씨는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여 사 씨의 행동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 교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어 한림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교 씨는 한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B]에서 서술자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B]에서 서술자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전망을 암시하고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무렵 한림 부부는 나이가 모두 스물세 살이었다. 그들이 성혼한 지도 또한 십 년 가까이 흘러갔다.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다.

사 씨는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면서 홀로 생각하였다.

‘체질이 허약하여 자녀를 생육할 수 없는가 보다.’

사 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하였다.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여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사 씨는 남몰래 매파를 시켜 양가(良家)에서 쓸 만한 사람을 고르게 하였다.

두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내 사 씨를 찾아갔다.

“듣자 하니 낭자가 장부를 위해 첩을 구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야.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다는 말인가?”

“첩이 존문(尊門)에 들어온 지 이미 구 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자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소실(小室)을 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의 생육(生育)이 빠르거나 늦음은 천수(天數)에 달린 것이야. 사람들 가운데에는 간혹 서른이나 마흔 살 이후에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지. 낭자는 이제 겨우 스물을 넘겼어. 어찌하여 그처럼 근심을 지나치게 하는가?”

“첩은 타고난 체질이 허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늙지 않았으나 혈기가 벌써 스무 살 이전과는 다릅니다. 월사(月事)도 또한 주기가 고르지 않지요. 이는 첩만이 홀로 아는 일입니다. 하물며 일처일첩(一妻一妾)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첩에게 비록 관저(關雎)의 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세속 부녀자들의 투기하는 습속은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 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 두겠다. 네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 후(呂太后)가 척 부인(戚夫人)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병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 앞으로 각 별히 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청덕(淸德)이 소첩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거나 앓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교 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 씨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도 들어 본 적이 없었어. 아마도 교 씨의 말이 실정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한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 씨를 위로하였다.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의 권고를 따른 일이었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지. 이 일은 아마 비복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참언을 하였기에 부인이 잠시 노하여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성품이 본시 유순하니 자네를 해치려 하지는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말게. 하물며 내가 있질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교 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다만 한림에게 사례할 따름이었다.

(다)

야아!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교 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따라서 사 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었다. 경계한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또한 교 씨를 바른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호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 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조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한림은 교 씨의 간계를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사 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교 씨는 다시 참조를 행할 수 없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당곡고등학교 (서울)**

6.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포는 속언(俗言)으로 많은 소설을 지었다. 그 가운데 「남정기」라 하는 것은 할 일 없이 지은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패관 소설은 황탄하지 않으면 경박하고 화려한데,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교(世教)에 도움이 되게 할 만한 것은 오직 「남정기」 뿐이다.

- 김춘택, 『북한집』 중에서

- ① 두 부인을 통해서 당시의 축첩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군.
- ② 위 작품은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뿐만 아니라, 삶의 교훈까지도 주기에 의미가 있구나.
- ③ 위 작품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세교(世教)에 도움이 되고자, 황탄하고 경박한 면을 제외시켰겠군.

- ④ 어질고 사려 깊은 사 씨가 여인의 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교적 도리를 보여주고 있어.
- ⑤ 가정 내의 문제를 바탕으로, 권선징악(勸善懲惡)과 개과천선(改過遷善)을 주제로 하여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있어.

**당곡고등학교 (서울)**

7. (다)의 서술 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이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이 자신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주로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을 직접 평가하고, 상황을 해설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읽은 학생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소식의 『동파지림』에 이런 말이 있다. “거리의 어린 아이들은 천박하고 수준이 낮는데, 집안사람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아주 질리게 되면, 돈을 주어서 모아 앉혀 두고 옛날이야기를 듣게 했다. 이야기가 삼국의 일에 이르러 유현덕이 패하는 것을 듣게 되면 눈썹을 찡그리고 찌푸리다가 우는 놈마져 있다. 조조가 패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즐거워해서 노래하며 기뻐했다.” 이것이 곧 나관중의 『삼국지연의』가 생겨난 시원이 아니겠는가? 이제 만일 진수의 『삼국지』나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대본으로 삼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통속 소설이 지어지는 이유이다.

- 김만중, 『서포만필』 중에서

(나) 서포는 속언(俗言)으로 많은 소설을 지었다. 그 가운데 『남정기』라 하는 것은 할 일 없이 지은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패관 소설은 황탄하지 않으면 경박하고 화려한데,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교(世敎)에 도움이 되게 할 만한 것은 오직 『남정기』 뿐이다.

- 김춘택, 『북헌집』 중에서

- ① 윗글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읽힌 작품이겠군.
- ② 윗글이 창작된 시대에서 소설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군.
- ③ 윗글은 황탄하지 않으면서도 경박하지 않은 글이라 볼 수 있겠군.
- ④ 작가는 소설을 통해 독자들을 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윗글을 창작했겠군.
- ⑤ 윗글은 주된 독자층이 평민층으로 형성되어 감동과 교훈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겠군.



## IV-1 찬기파랑기

1.④ 2.① 3.음성 상징어는 없음 4.1)무스미 굶을 쫓누  
아저 2)жат까지 5.③ 6.④ 7.④ 8.⑤ 9.④ 10.② 11.②  
12.⑤ 13.③ 14.나라: 맑고 깨끗한 모습, 지벽: 원만하  
고 강직한 성품, 잣사가지: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  
상 15.⑤ 16.⑤ 17.④ 18.향찰, 낙구 19.④ 20.⑤ 21.  
화판(화랑의 우두머리) 22.③ 23.① 25.① 26.⑤ 27.⑤  
28.④ 29.⑤ 30.나라: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 지  
벽: 기파랑의 원만하면서도 강직한 성품, 잣사가지: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상

## IV-1 시조 세 편

1.① 2.④ 3.③ 4.③ 5.③ 6.① 7.② 8.② 9.① 10.⑤  
11.③ 12.③ 13.떠나려는 임을 붙잡지 않고 그냥 보  
내 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회한임. 14.누  
군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의 벼슬보다  
낫다고 하던데 천자의 자리가 이만하랴 / 속세의 삶  
보다 자연 속의 삶을 더 만족스러워함. 15.⑤ 16.①  
17.도치나 행간 걸침을 통해 중의성을 가짐. 18.㉠:  
임 ㉡: (내가)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임이 구태여 갔으  
랴마는, (임을) 보내고 19.③ 20.⑤ 21.③ 22.③ 23.①  
24.③ 25.㉠'제'는 임을 의미 ㉡'제'는 화자를 의미  
26.말습도 우음도 아녀도 묻내 도하호노라 27.① 28.  
② 29.⑤ 30.④ 31.④

## IV-1 수의 비밀

1.② 2.④ 3.⑤ 4.㉠: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고 정확하  
기 ㉡: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 5.⑤ 6.④ 7.⑤  
8.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정확되므로 그때에 수를 완  
성하려고 / 수 안에 넣을 아직 가치 있는 보물이 없  
기 때문에 9.③ 10.③ 11.④ 12.④ 13.④ 14.⑤ 15.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16.② 17.⑤ 18.  
1)㉠: 임과의 재회, ㉡:종교적 깨달음 18.㉠: 가치 있  
는 것, ㉡: 진리의 구도 19.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  
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20.② 21.③ 22.④ 23.1) 이 작은 주머  
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  
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2) 짓고 싶으면 짓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서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논  
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말이다. 3) •수를 놓는 과정  
에서 마음의 위안과 정확을 얻기 때문에, 수놓기를  
계속하고 싶어서(짓고 싶어서) 일부러 수를 짓다가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하며 끝내지 않는 것(다 짓지  
않는 것)이다. / •임의 옷에 어울릴 만한 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는 옷을 짓기 위해서(짓  
고 싶어서) 아직 옷을 완성하지 않는 것(다 짓지 않  
는 것)이다. 24.② 25.⑤

## IV-1 조신의 꿈

1.④ 2.① 3.③ 4.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신라 시대, 명  
주 날리군, 강릉 해현령 등)를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  
된다. 또 '돌미륵'이나 '정토사' 등을 증거물로 삼아  
이야기에 신빙을 더하고 있으며, 사찰의 유래를 밝히  
고 있다는 점에서 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  
①⑤ 6.① 7.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버들솜 8.① 9.①④  
10.④ 11.① 12.⑤ 13.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신라 시  
대, 명주 날리군, 강릉 해현령 등)를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또 '돌미륵'이나 '정토사' 등을 증거물로 삼  
아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며, 사찰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14.② 15.⑤ 16.돌미륵 17.돌미륵, 정토사 18.①  
19.③ 20.② 21.③ 22.③ 23.③ 24.㉠: 인간의 욕망과  
집착의 무상함, ㉡: 환몽 구조, ㉢: 몽자류 소설 ㉣: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함 25.③ 26.⑤ 27.⑤ 28.전  
설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신라 시대, 명  
주 날리군, 강릉 해현령 등)를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  
된다. 또 '돌미륵'이나 '정토사' 등을 증거물로 삼아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함. 29.③ 30.① 31.③ 32.③ 33.  
⑤ 34.① 35.①

## IV-2 사씨남정기

1.⑤ 2.⑤ 3.⑤ 4.⑤ 5.① 6.③ 7.⑤ 8.② 9.⑤ 10.②  
11.사람의 속마음은 알기 어렵다 12.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으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사건  
의 정황을 해설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  
다. 또한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처첩  
제도에 따른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13.⑤ 14.㉠: 권  
선징약 ㉡: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  
고,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15.① 16.② 17.⑤ 18.㉠: 축첩 문제 제기 ㉡: 권선징  
약 19.④ 20.⑤ 21.⑤ 22.⑤ 23.⑤ 24.④ 25.② 26.④  
27.⑤ 28.① 29.② 30.① 31.국문 소설로 인한 작가층  
의 확대로 다양한 소설의 유행함. 32.⑤ 33.⑤

## IV-1 찬기파랑가

2.①

▶독백이 아닌, 화자가 달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구성 방식을 취함

▶응, 헛갈리지 마!◀

### 1. 애상적 (★):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 (○)  
사랑스러운 감정 (×)

### 2. 독백 vs 대화 vs 방백 (★★★)

- ㄱ.독백: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혼자 말함.
- ㄴ.대화: 청자를 의식하고 상대와 말을 주고받음.  
(시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대화체'로 봄)
- ㄷ.방백: 극문학에서 상대가 옆에 있어도 화자의 말을 못들은 것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세속(속세)적 (★★★)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성격이지만 문학작품에서는 보통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자주 사용된다.

6.④

▶윗글과 ④는 예찬의 태도가 있음.

### ◆주제 저장소◆

- ① <창밖이 어른어른커늘>: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 ② <흥망이 유수하니>: 고려의 패망과 역사의 허무함.
- ③ <초당에 일이 업서>: 태평 성대의 염원
- ④ <빙자옥절이여>: 매화 예찬
- ⑤ <내 마음 버혀 내어>: 선조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였다, 1등급 조연◀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7.④

▶④만이 시련을 나타냄.

8.⑤

▶둘 다 음성상징어는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1.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내면 대구법이 됨.

### 2. 반어법 vs 역설법 (★★★)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 3.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 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 4.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1.②

▶우리말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 문학임.

▶응, 헛갈리지 마!◀

### 사물 vs 자연물

-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1.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12.⑤

▶ ⊙ : 시련, 불의임.

13.③

▶ ㄱ. 점층법은 없음. ㄴ. 동일한 시어의 반복은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열거(나열) vs 반복 vs 대구 (★★)

ㄱ.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ㄴ.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 →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ㄷ.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2. 점층법 vs 점강법 (★)

ㄱ. 점층법: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  
이거나 낮혀 그 뜻을 강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ㄴ. 점강법: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  
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에 있는 ‘대한민국’)

▶넣어둬, 패턴 공략◀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현재형 어  
미> 등의 사용

15.⑤

▶ 서리는 시련, 불의를 나타냄.

16.⑤

▶ ⊙처럼 폭풍도 시련을 나타냄.

◆주제 저장소◆

- ① <목계장터>: 떠돌이 민중의 삶의 애환
- ② <눈길>: 눈길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무념무상의 경지
- ③ <무등을 보며>: 가난을 이겨 내려는 삶의 긍정적 자세
- ④ <봄>: 다가오게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
- ⑤ <그 여름의 끝>: 자연의 생명력을 통한 시련의 극복

17.④

▶ ④만이 임에 대한 그리움이고 나머진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있다.

◆주제 저장소◆

- ① <신도가>: 새 도읍(한양)의 승경(勝景)과 태조의 덕 예찬
- ② <국화(菊花)야 너는>: 선비의 높은 절개와 굳은 지조 예찬
- ③ <늙은 잣나무>: 늙은 잣나무에 대한 예찬
- ④ <님 그려 겨오>: 임에 대한 그리움
- ⑤ <봄>: 다가오게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

20.⑤

▶ ‘서리’는 시련임.

22.③

ㄱ: 작가는 화랑이 아닌, 승려임, ㄴ: 고려 시대가 아닌, 신라 시대에 창작되었음.

24.②

▶ 비판적 태도는 없음.

26.⑤

▶ ⊙: 화랑의 우두머리를 나타냄.

27.⑤

▶ ⑤와 위 작품은 예찬적 태도를 보임.

◆주제 저장소◆

- ① <이화에 월백하고>: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적인 정서
- ② <春山(춘산)에 눈 녹인>: 늙음에 대한 관조
- ③ <뫼터들 갈히 것거>: 임에 대한 그리움
- ④ <국화야 너는 어찌>: 국화 예찬
- ⑤ <강산 조흔 경(景)을>: 자연과 함께 하는 삶

28.④

▶ 화자는 대상(기파랑)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연물(나리, 지벽 등)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29.⑤

▶ ⊙: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상

IV-1 시조 세 편

1.①

▶ ㉞의 경우, 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3.③

▶'쉬프리'는 구체적 대상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빈출 비유법 (★★★)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2. 열거(나열) vs 반복 vs 대구 (★★)

- ㄱ.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 ㄷ.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넣어둬, 패턴 공략◀

관념적=추상적=공상적 VS 구체적=실제적=현실적 (★)

'구체적', '사실적', '현실감', '생생함', '의성어 혹은 의태어' 사용 등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4.③

▶㉞: 천자 또는 천자의 자리를 이르는 말.

6.①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을 기반으로 함.

▶넣어둬, 패턴 공략◀

작품 속에 반영된 종교(철학) 관련 어휘 맥락

유교적: 충성, 효도, 학문, 수양, 임금, 우정...

불교적: 환생, 인연, 이별, 자비, 선행...

도교적: 자연친화, 신선사상, 옥황상제, 초현실적...

7.②

▶(다)만이 대상을 풍자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풍자 vs 해학 vs 언어유희 (★★★)

- ㄱ.풍자: 남 혹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면서 비판 (웃음+비판 목적)
  - ㄴ.해학: 오직 웃음을 유발할 목적 (웃음 목적)
  - ㄷ.언어유희: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 (웃음 목적+비판 동반가능)
- '웃음'은 우리 문학의 주요한 테마 요소로 희화화, 풍자, 해학은 모두 웃음을 동반하는 공통점이 있다.

8.②

▶(가)와 [A] 모두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은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내면 대구법이 됨.

2. 영탄법:

감탄사 '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을 사용하거나, 호격조사 '아, 야, 이여, 이시여' 등과 감탄형 종결어미 '-아라 /-어라, -구나, -ㄴ가' 등을 사용하여 강하고 깊은 감정을 드러낸다.

3.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